

“호남 정치 당당한 주체 계기”

안호영 의원, 이재명 대선후보 전북 방문 관련 “도민 지지로 당선되면 전북발전 큰 도움 될 것”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북 방문과 관련해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이 호남 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전북의 현안 현장을 방문해 가는 곳마다 도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아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고, 전북 현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북방문이 다른 때와 다른 점은 광주나 전남에 가는 길에 들리는 거처가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일정을 만들어 현장 곳곳을 누볐다면서 ‘이는 그만큼 전북을 독자적이고 중요한 곳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정세균 총리도 확고한 지지 의사를 과시해 이 후보가 큰 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전북 발전을 위해서나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북도민들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북 지지해주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전북을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북 익산과 전주, 군산, 정읍, 완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지역 등을 돌며 전통시장과 현안 사업장 등에서 관계자를 만나 “국민본심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벌였다. /유호상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친환경 상패로 소비문화 개선 유도

이명연 도의원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상패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소비문화의 개선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패나 기념패는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

아크릴은 이론적으로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거인도 적고 처리도 낮은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 전주11)은 “재활용품으로 제작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부터 사용해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 및 시·군과 출연기관 등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음력달별도 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 폐소폐물 수거 교환사업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명연 의원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 재도약 위한 새로운 시작”

윤준병 의원,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 실현 민중 정읍 · 고창 지역위, 보고회 · 비전 선포식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5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에서 주관한 내장저수지 상류지역 국립공원 해제 보고 및 비전 선포식(이하 보고대회)에서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돼 정읍의 20년 묵은 현안 사업이 해결됐다고 정읍시민에게 보고했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36호)의 효력이 지난 3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장저수지 상류와 내장산 관광호텔 예정부지의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그간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민들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제지역 구역 설정 및 대체 편입지 지정 관련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논리를 개발했다.

또한 수시로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자들에게



윤준병 의원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 정읍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읍시민들의 여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이제 정읍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해제되는 내장저수지와 관광휴양 부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거점을 만들어 나가자”며 “이와 함께 내장산문화광장과 용산호 일대, 그리고 정읍 도심을 트리아렐로 묶어 생태·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의 정읍시 토달랜드 조성 사업, 내장 상가 정비, 내장리조트 단지의 숙박시설 건축, 국가생태관광지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면서, 교통접근성 및 연계 강화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 정읍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읍시민들의 여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이제 정읍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해제되는 내장저수지와 관광휴양 부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거점을 만들어 나가자”며 “이와 함께 내장산문화광장과 용산호 일대, 그리고 정읍 도심을 트리아렐로 묶어 생태·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읍과 고창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정읍 20억, 고창 21억 등 총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근거 마련

김기영 도의원, 조례 개정 통해

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 3)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령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채납기준 기간을 5천에서 3천으로 단축하고,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연평균납세액을 차등 적용해 선정 대상자를 확대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도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화가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령안은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즉각 시행된다. /유호상 기자



김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도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화가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총리 자문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강조 내용 총리실에 전달

이학수 국무총리 자문위원(전 전북도의원)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북방문에서 강조한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지난 3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전북방문에서 이 후보는 새만금 문제의 해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 설립 등 전라북도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감한 정부의 투자를 역설하며, 완주의 수소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기존과는 다른 방문일정과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호남안에서 또 소외받



이학수 국무총리 자문위원(전 전북도의원)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북방문에서 강조한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고 있는 전북이 더 이상 홀대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이 후보의 의중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학수 자문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산적해 있는 전북의 지역현안과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발언함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이번에는 다르겠다’라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무총리 자문위원으로써 정책제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학수 자문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직본부로 경선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전북방문 정읍일정에도 동행해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음=김대환 기자

익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이 익산시 지역 현안을 해결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9억, ▲펜싱야카데미 조성사업 4억, ▲여산 호월천 일원 홍수피해 정비사업 8억 등 3개 사업 총 21억 원으로 구성됐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익산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펜싱야카데미 조성사업은 공공 체육시설 마련으로 시민 건강과 여



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익산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생활을 증진하는 한편,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침수 피해가 발생해온 여산 호월천 일원에는 홍수피해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와 농업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익산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이제는 변화할 때”

유창희 민주평등전주협의회회장, 전주시장 도전

유창희 대표取締役 민주시민회 전주지부의 회장 이 6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유 회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전주 시민들은 전주가 21세기 기업환경에 걸맞은 기업체 하나 없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다 보니 경제활

랑을 키울 수 있으면서 문화와 관광, 기업활동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유 회장은 전주 경제·문화 부흥을 위해 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팍팍한 삶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하고 변화할 때”라며 “경제연구가 살아 숨쉬는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전주·완주 권역을 묶는 새로운 개념의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어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인접 시군 간의 “특별자치단체 설치법”을 활용해 전주·완주 간 문화경제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100만 경제특별시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회장은 “기존에 제시됐던 강제·강요의 행정통합이 아닌, 서로간의 생활권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하는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이는 전주가 완주가 독립적인 주체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역

“소상공인 시민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청년차차기(가칭)”를 신설하며 전주를 “메타버시티”로 구축해 새로운 경제의 장을 열어 전주를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에서 체육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며 다양한 복지를 추구하고, 지역발전의 발맞추는 행정처리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적임부서에 부여하는 ‘베스트행정’ 시행과,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현안문제에 관해서는 종합경기장으로 전주시청을 이전해 전주의 심정을 다시 한 번 활기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대한방직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표명했다.

/김윤상 기자



유창희 민주평등전주협의회회장, 전주시장 도전

“또 한번 몸 불사를 수 있기를”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2일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제20대왕국인위원회(이사장 이윤태)에서 시상하는 ‘2021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회공헌 부문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 전 부지사는 광주 부시장 시절, 광주형일지리를 태동하게 했고 부지사 재임시에는 군산형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만금공항 예산 요구는 90억 원이었으나, 기재부에서 200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전북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어도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한 경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산단 대개조 선정, 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수소융합범사지원센터 유치, SK 컨소시엄·GS글로벌, 쿠팡 물류센터 등 기업 유치 등에 여러 성과를 내 평소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이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우 전 부지사는 “산업문명시대에 뒤처졌던 낙후경제에서 탈피해 생태문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가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며 “또 한번 몸 불사를 수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지역 발전 필요예산 심사 약속”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내년 전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효율적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6일 전주시의회 백영규(중앙, 완산, 중화신·2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의 열세로 마련한 예산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서민·소상공인의 피해



백영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효율적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가 막심한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610억 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2조2271억 원을 7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한다.

특위는 백 위원장과 이윤차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남규, 최명철 위원, 김진욱, 박형배, 이경신, 강승원, 김호성, 이남숙, 정성길, 채영병 의원으로 꾸며졌다.

전주시는 위드코로나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 신성장·고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0% 가량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